

순천만, 전남 유일 전국 12대 생태관광지역 선정

환경 보전가치 높고 생태계 중요성 체험·교육장 활용

정부 예산 지원과 함께 로고 사용·컨설팅·홍보 혜택

지구상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전된 세계5대 연안습지의 하나인 순천만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전국 12대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됐다. 순천시는 8일 "환경부는 올해부터 생태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를 추진, 지난 5일 순천만을 비롯한 12곳을 첫 사업대상지

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선정은 전국 공모를 통한 총 54개 후보지역 가운데 자연·생태적

전국 생태관광지역 12곳

순천만, 울산 태화강, 부산 낙동강 하구, 하늘내린 인제, 양구 DMZ, 평창 동강, 서산 천수만, 서천 금강하구, 울진 왕피천, 남해 영감만, 장년 우포늪, 제주 동백동산습지

보전가치, 환경과 지역문화의 이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생태관광 추진의지와 협력기반 등 6개 분야 17개 지표

에 대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조사 후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순천만은 국내 연안습지 최초 랍사르 습지 등록, 갯벌로는 국내 최초 국가 명승지 제4호 지정 및 순천만 생태교실과 천문관측, 공작체험, 갈대얼차, 탐조체험 등 해설사 프로그램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생태관광지역 선정으로 시는 정부로부터 5000만원의 예산과 함께 생태관광 이미지를 향상화한 로고 사용권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태관광지역 선정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위상이 한껏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전국민에게 사랑받는 순천만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엔 지정된 12대 생태관광지역은 순천만을 비롯한 울산 태화강, 부산 낙동강 하구, 하늘내린 인제, 양구 DMZ, 평창 동강, 서산 천수만, 서천 금강하구, 울진 왕피천, 남해 영감만, 장년 우포늪, 제주 동백동산습지 등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여수 해양연구센터 힘찬 출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해양연구센터 개소식이 지난 5일 여주시 돌산청사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충석 여주시장과 박정재 여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신용석 국립공원연구원장, 정원욱 해양연구센터장 등 내빈과 연구센터 임직원들이 함께 발전을 기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여주시 제공>

여수 복지재단 설립 오늘 시민토론회

여수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열린다. 여수시는 8일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한 여수복지재단 설립 시민토론회가 9일 여주시 회의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여수복지재단 설립추진위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시의원과 학계, 사회복지시설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영일 지역사회협회의체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고 김양자 여주시 환경복지국장이 '여수복지재단의 필요성 및 설립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임재욱 한영대학 교수, 이철재 광양시사라나눔복지재단 사무처장은 각각 '여수지역사회복지 환경 및 정책 기본 방향'과 '복지재단의 주요 역할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배윤구 전남말벌복지재단이사장과 최무경 여주시의원, 강영문 전남대 교수, 성혜란 여수여성인력센터개발관장 등이 참여한다.

한편 여수복지재단은 60억원 규모의 기본재산 적립을 목표로 기부와 나눔의 창구를 일원화 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추진 중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전북

정읍 내장산리조트 투자유치 본격화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 공정을 95%...설명회 개최 민자유치 촉진 기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는 한국관광공사와 정읍시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일 전주 코아리베라 호텔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정읍시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라북도 지부 임원 및 회원, 전라북도관광협회 임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라북도 지부 임원 및 회원, 전라북도관광협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을 설명하고 공인중개사 지역협회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우선 개발이 가능한 펜션, 게스트 하우스(여관)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광공사 전북지사는 이번 설명회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펜션, 스카파크 등을 조성하는 등 내장산 투자유치 및 조기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은 정읍시 선정·용산동에 위치한 158만

7천여㎡(약48만평) 부지에 정읍시 420억원, 한국관광공사 440억원, 민자 2367억 등 총 3227억원을 투입해 골프장, 펜션, 스카파크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이다. 시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 2003년 개발협약을 체결했으며, 2006년 조성계획 승인에 이어 2008년 내장산리조트 기반시설공사의 첫 삽을 뜬 후 사업을 공동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기반시설공사 공정은 토목 기준 95%로, 2014년 상반기 완료를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사업

남원 금지·아영·송동지구 선정

남원시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응모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금지·아영·송동 3개 지구가 연속으로 선정됐다. 시는 8일 "35ha 면적의 송동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에 기반조성사업에 국비 11억원을 지원받아 2014년부터 2년 동안 경작로 정비, 용·배수로개발 등 과실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금지·아영지구 172ha에 국비 55억9300만원의 지원 받아 알밤 관장 설치, 저수조 및 용·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등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과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바 있다. 과수단지들이 자연발생적으로 과수단지가 형성되면서 기반시설이 크게 미흡했으나 이들 사업으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관내 과수 재배면적은 813ha로 전북지역 4600ha중 두 번째로 많은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포도(407ha) 복숭아(224ha), 사과(110ha), 배(70ha) 등이 주요 품목이다. 시는 이번 과실 전문 기반 정비 사업을 마친 뒤 대강면 방동지구에 대해서도 같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대학생 겨울방학 행정업무 체험 기회

고창군 200명 선발 공공기관 등 배치

고창군은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에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2014년도 겨울방학 일자리 사업을 1월부터 3회에 걸쳐 추진한다. 선발 예정인원은 200명으로, 오는 1월 2일부터 3회에 걸쳐 각 10일간 군청, 사업소, 읍면사무소, 공공기관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근무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13일까지 고창군 민생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지가 고창군이여야 하며, 전문대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이면 가능하다. 휴학생, 재학생, 대학원생은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정보제공동의서 등이다. 군은 대상자 확정 후 30일 회의실에서 참여 대학생 및 공무원 등 240여명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해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시청각 교육 및 만남의 시간을 갖고 근무 수칙 등을 전할 방침이다. /고창=윤창원기자 cy0370@

남원시 수학여행단 유치 팸투어

남원시가 수학여행 유치를 위해 초청한 교장단 40명이 지난 6일 광한투어에서 판소리 공연을 듣고 있다. 시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만에 걸쳐 제주 한림여자중 등 전국 중학교 교장단 40명을 초청해 수학여행 팸투어를 실시했다. <남원시 제공>



광양항 컨부두 대형크레인 설치

1만8000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 하역작업 가능

광양항에 1만8000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하역작업이 가능한 대형크레인(사진)이 설치돼 이달 말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는 8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3-1단계에 24열 8대 대형크레인 1기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1TEU는 20피트(약 6m) 규격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말한다.

트 컨테이너 2개를 동시에 들어 올릴 수 있는 '트윈-리프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 높이 82.2m에 최대 61t까지 인양할 수 있으며 시간당 컨테이너 40개를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이 크레인은 해운업계의 차세대 주력선으로 떠오르고 있는 1만8000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물량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

최상형 항만시설팀장은 "24열 크레인이 가동되면 컨테이너선의 하역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돼 선사와 부두운영사의 경비절감은 물론 선적 회전율을 높이는 등 하역생산성이 높아 광양항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최상형 항만시설팀장은 "24열 크레인이 가동되면 컨테이너선의 하역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돼 선사와 부두운영사의 경비절감은 물론 선적 회전율을 높이는 등 하역생산성이 높아 광양항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단신

군산시의회, 구도심 지구대 신설 촉구

군산시의회가 옛 도심의 치안공백 최소화를 위한 경찰 지구대 신설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6일 '흉남·미원·대명·삼학·문화동 일대의 치안공백이 우려된다' 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주·군산=박성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요구했다. 시의회는 "흉남지구대가 내년 예산에 신설되면 흉남·미원·대명·삼학·문화동 일대의 치안공백이 우려된다" 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주·군산=박성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오늘부터 신청 접수

전주시는 2013년도 착한가격업소 신청서를 오는 9일부터 5일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전주시내 소재 개인서비스업소로, 가격수준이 지역평균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 진정된 업소, 옥외가격 및 인산지 표시 등 정부·지자체 시책 호응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신청을 회

망하는 업소에서는 영업자가 시청 지역경제과나 구청 경제교통과, 동주민센터,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정보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13일까지 신청접수 후 현지실사를 거쳐 자체 및 안전행정부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전주·군산=박성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 홈페이지 새단장...접속자 10만명 돌파

순창군은 8일 "순창군 홈페이지(http://www.sunchang.go.kr)가 지난 10월 개편된 후 접속자가 크게 증가해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개편 전 홈페이지 접속자는 일일 평균 2500명에 불과했지만 개편 후 3600명으로, 무려 1100명이 증가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접속자들

은 주로 군정소식을 접할 수 있는 메인 화면의 통합 게시판이 가장 많이 찾았으며, 산업경제, 생활복지 메뉴가 그 뒤를 이었다. 또 메뉴별 QR코드에 스마트폰을 인식시키면 해당 정보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기능도 인기를 끌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농기센터 20일까지 벼 보급종 종자 신청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이달 20일까지 2013년산 정부 벼 보급종 종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장소는 거주지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이다. 벼 보급종 총 공급량은 432t으로 정읍시 전체 종자소요량의 57%이다. 신청 받는 보급종은 내년 3월까지 각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될 계획이며, 가

격은 내년 1월 결정될 예정이다. 내년엔 가을 벼 보급종 종자는 신동진, 새누리, 황금누리, 윤광, 동진찰벼 등 5개 품종이다. 기술센터는 "새해에는 동진찰벼만 소독하지 않고 공급할 계획이므로 종자소독 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